



세계로 통하는 문화한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박물관 2013 - 88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안경숙 Tel 02-2077-9469 aks9494@korea.kr
보 도 자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 12. 5. 배 포 ■ 불임 : 1.최초 공개유물 2.보기 힘든 유물 ■ 총 6쪽 <div data-bbox="1177 369 1404 459">  </div>

국립중앙박물관

국내 최초의 도교 관련 종합 특별전

“한국의 도교문화 -행복으로 가는 길” 개최

- 전시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 전시유물: 국보 제287호 백제금동대향로 등 300여 건
- 전시기간: 2013년 12월 10일(화)~2014년 3월 2일(일)
- 특 강: ‘한국 도교문화의 흐름과 특징’ 정재서 교수(이화여자대학교)
2013년 12월 18일(수) 오후 2시 대강당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오는 12월 10일(화)부터 2014년 3월 2일(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013년 마지막 기획특별전 “한국의 도교 문화 -행복으로 가는 길” 을 개최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그동안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과 민족적 정체성을 일깨우는 전시들을 꾸준히 개최해 온 바 있다. 이번 전시는 유교·불교와 함께 삼교三敎로 일컬어질 만큼 우리 문화의 근간을 이루었고, 지금까지도 세시풍속과 신앙, 예술, 대중문화, 그리고 건강 수련 등 우리 생활 각 분야에 그 맥이 이어지고 있는 도교 문화를 되돌아봄으로써, 한국 정신문화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확인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전시는 특히 한국의 도교문화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핀 대규모 전시로서는 최초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출품된 유물들도 국보 6건 7점, 보물 3건 4점을 포함하여 고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회화와 공예품, 전적류, 민속품, 그리고 각종 고고발굴품 등 300여 건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의 유물들이 망라되어 있다.

전시의 구성은 크게 1부 ‘도교의 신神과 의례儀禮’, 2부 ‘불로불사不老不死’, 3부 ‘수복강녕壽福康寧’으로 이루어져 있다. 1부 ‘도교의 신과 의례’에서는 <신이 된 노자>, <하늘, 땅, 물의 신>, <나라에서 지내는 도교 제사> 등의 주제를 통해 여러 종류의 신들을 향한 한국인들의 염원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볼 수 있다.

2부 ‘불로불사’에서는 <신선의 세계, 동천복지>, <신선세계를 꿈꾸다>, <신선이 되는 법> 등의 주제로 도교적 이상향과 신선세계에 대한 동경, 신선 되는 방법 등을 알아본다.

마지막 3부 ‘수복강녕’에서는 <함께 하는 도교>, <복을 바라다>, <민간 신앙과 도교> 등의 주제 하에 다양한 종교사상과 소통●공존한 도교문화의 모습과, 회화와 공예품 등 일상 속의 유물들에 남은 도교적 기복祈福의 자취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잘 알려진 명품이지만 평소 박물관에서조차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유물들을 만날 수 있다.

그 동안 부여에 가서야 볼 수 있었던 백제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 국립부여박물관)가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상 최장 기간 전시될 예정이어서,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백제문화의 정수를 직접 감상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신선도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김홍도필 군선도(국보 제139호, 삼성미술관 리움)도 관람객들을 눈을 즐겁게 해 줄 것이다.

아울러 최초로 공개되는 유물이면서 그 수준 또한 당대 최고를 자랑할 만한 것들이 이번에 전시된다. 일월오봉도日月五峯圖와 해반도도海蟠桃圖, 조주갑인자본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 등을 들 수 있다.

일월오봉도와 함께 앞뒤 양면을 이루고 있는 해반도도는, 곤륜산에 산다는 도교 최고의 여신 서왕모의 과수원에서 3천 년에 한 번 열린다는 반도蟠桃를 형상화한 것으로, 불로장생을 축원하고 상징하는 그림으로 애용되었다. 이 그림은 궁중 화원이 그린 공필진채화工筆眞彩畫로서, 왕의 불로장생을 축원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일월이나 학이 등장하지 않는 해반도도 장르로서는 유일한 작품이다.

이 일월오봉도·해반도도 양면 작품도 그러하지만, 이와 별도로 장지문의 양면에 그려진 해반도 한 쌍 역시 서양의 안료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안료인 석채를 사용하였음이 분석 결과 밝혀졌으며, 종이와 비단의 질은 물론 작품으로서의 수준 또한 당대 최고를 자랑한다.

또한 초주갑인자본 『주역참동계』는 1441년(세종 23)에 간행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주역참동계』로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어서 그 서지학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 책은 『포박자』·『황정경』과 더불어 수련과 관련한 3대 도교 경전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책이 16세기 관료에게 왕이 내린 내사본內賜本이라는 점은 조선 후기와도 다른 15~16세기의 사상적 풍토를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교는 여러 얼굴의 종교이다. 도교 속에 포함된 종교사상적 요소도 매우 다양하지만, 그 종교 생활의 형태도 외관상 이중적인 면이 있다. 한편으로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수련과정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온갖 신들에게 제사를 올리며 갖가지 세속적인 복을 비는 것도 도교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여러 얼굴의 도교이지만 그 궁극의 목표는 불로장생과 재물 획득, 질병치료와 같은 현세적 행복의 성취이다.

이번 전시는 그런 행복을 향한 한국인들의 여정에서 도교가 종교로서가 아닌 문화로서 어떻게 취사선택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전의 기획전시 들과 달리 무료관람으로 운영할 이번 전시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한국 도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오늘날까지도 우리 생활 가까이 그 맥이 이어지고 있는 도교 문화의 의미와 문화콘텐츠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안경숙학예연구사 (☎ 02-2077-946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최초 공개 유물

연번	내용설명	사진자료
1	<p>일월오봉도 조선, 194.7×219.0cm, 비단에 색 1909년 입수, 덕수 2153-1</p> <p>보존처리를 거쳐 최초로 공개하는, 현존 최고最古이자 최고最高의 일월오봉도이다. 『창경궁 영건도감의궤昌慶宮營建都監儀軌』(1834)에 기록된 함인정涵仁亭에 배설된 일월오봉병(뒷면은 해반도도)일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다. 현존 20세기 일월오봉도에서 양녹·양청 등 중국을 통해 들어온 서양 안료를 쓴 것과 달리, 천연 안료인 석채를 사용하였음이 분석 결과 밝혀졌다. 또한 산의 능선에서 금니를 사용하였고, 다른 작품에 비해 도식적이지 않은 최고 수준의 걸작이라 할 수 있다. 궁중장식화 중 전후 양면에 일월오봉도와 해반도도가 그려진 것으로도 현존 유일한 작품이다.</p>	 <p>사진 1. 일월오봉도</p>
2	<p>신선 세계의 복숭아 海蟠桃圖 조선, 195.8×238.5cm (사진2), 종이에 색 193.8×128.2cm (사진3), 비단에 색 196.0×149.0cm (사진4), 종이에 색 국립중앙박물관</p> <p>사진2: 일월오봉도(사진1)의 뒷면에 그려진 해반도도이다. 종이 재질의 분석 결과 19세기 왕실에서 사용한 최고 양질의 것임이 드러났다. 궁중 화원이 그린 공필진채화工筆眞彩畵로서, 왕의 불로장생을 축원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일월이나 학이 등장하지 않는 해반도도 장르로서는 유일한 작품이다.</p> <p>사진3·4: 이 해반도도의 앞뒷면은 그림과 창호로 구성되어 있다. 거북등모양[귀갑살]의 창호가 회랑 쪽을 향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의 구성 및 양식이 사진2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화원이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1·2·3·4 두 쌍의 그림은 전체 높이가 같은 210cm로서, 궁실 내 한 공간을 장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p>	 <p>사진 2. 신선 세계의 복숭아</p>  <p>사진 3</p>  <p>사진 4</p>
3		

주역참동계 周易參同契

위백양魏伯陽, 조선 15세기, 34.4×22.0cm
고령신씨 안협공파 중중회 기탁

16세기의 관료 관료 신언식申彦湜(1519~1582)의 무덤에서 출토된 후한後漢 위백양魏伯陽의 저서이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것으로는 현존 최고본最古本인 데다, 특히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보다 앞선 1441년(세종 23)에 초주갑인자 初鑄甲寅字로 간행된 것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어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이다. 맨 앞면에 '선사지기宣賜之記'가 찍혀 있어 왕의 내사본임을 알 수 있다. 『주역』의 괘상卦象을 이용하여 연단수련煉丹修鍊의 원리와 과정을 설명하였다. 『포박자』, 『황정경』과 더불어 3대 단서丹書로 평가되지만, 워낙 난해하여 주석서만 주자朱子の 것을 포함한 40여 종이나 된다. 남송南宋 유염윤탁의 서序(1284)와 원대元代 도사장여재張與材의 제題(1310) 등이 있다.



사진 5 주역참동계

천지반 天地盤 片

낙랑 석암리 201호 출토
고적 23189

가장 이른시기 점을 치던 천지반

고대에 천문을 통해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천지반이다. 삼식삼식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던 도구로, 보통 원형인 천반天盤과 방형方形인 지반地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축을 중심으로 두 반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위에 있는 천반이 회전되는 구조인데, 위의 천반 일부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천반편은 낙랑 석암리 201호에서 출토되었다.



사진 6 천지반 편

참고자료 2. 박물관에서도 보기 힘든 유명 유물

5	<p>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부여 능산리 사지 높이 61.8cm, 국보287호, 국립부여박물관</p> <p>부여에 가서만 볼 수 있었던 백제금동대향로를 이번 전시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에서도 <u>최장기간</u>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 향로는 1993년 부여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신선들이 산다는 신산神山을 표현한 박산향로 博山香爐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백제적인 요소를 가미하였다. 불교적인 모티프인 연꽃이 장식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고대의 전통적인 생명 탄생의 우주관과 도가 내지 도교적 신선사상이 함께 표현된 걸작으로 평가된다.</p>	 <p>사진 7 백제금동대향로</p>
6	<p>군선도群仙圖 김홍도,(1745~1806), 조선 1776년 종이에 엮은 색, 132.8×575.8cm 국보 제139호, 삼성미술관 리움</p> <p>개막 초 1개월간 전시한다.</p> <p>신선도 장르에서 빼놓을 없는 걸작으로, 굵기와 꺾임의 변화가 심하고 빠르게 구사된 활달한 옷주름선 등 단원 특유의 필치로 신선들의 자태를 잘 부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맨 앞의 하선고何仙姑와 영지버섯을 단 남채화藍采和, 흰 당나귀를 거꾸로 타고 책을 보는 장과로張果老, 딱딱이 모양 판을 치고 있는 조국구曹國舅, 대나무 통을 든 한상자韓湘子, 외뿔소를 타고 『도덕경』을 든 노자老子, 천도복숭아를 든 동방삭東方朔, 종이를 들고 걸어 다니면서도 글을 쓴 문창文昌, 머리를 깎은 종리권鍾離權, 머리에 두건을 두른 여동빈呂洞賓, 호리병을 든 이철괴李鐵拐 등이 보인다.</p>	 <p>사진 8 군선도</p>
7	<p>활인심방活人心方 이황李滉(1501~1570) 조선, 16세기, 45.0×29.2cm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진성이씨 상계종택 기탁</p> <p>조선의 성리학자 퇴계 이황(1501~1570)이 중국 명나라 주권朱權의 『구선활인심법臞僊活人心法』이라는 수련서를 요약하여 직접 쓰고 그린 책이다. 주권은 명나라 태조의 아들로, 도교에 조예가 깊어 현주도인玄洲道人이라 불렸다고 한다. 이황은 이 책의 서문에서 병은 모두 마음에서 비롯한다며 마음 다스리는 치심治心 또는 수양修養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황은 일종의 건강 체조라 할 도인법도 직접 그려서 매일 실천하였다.</p>	 <p>사진 9. 활인심방</p>